



「위성 전파자원과 전파통신 산업」 기획특집을 내면서...

세계는 지금 인터넷 세계의 성장으로 정보화시대의 급격한 진보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가히 인터넷 시대 또는 사이버 사회로 불리우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정치, 사회, 군사 및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무한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파이용촉진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전파자원 이용 수요가 자연스럽게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고정무선통신, 위성통신분야에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파이용기술도 다양하게 향상되어 나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된 CDMA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수가 현재 3000만 가입자를 돌파하여 유선가입자를 능가한 세계 최고의 무선통신 보급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에 전파자원의 이용률을 지적하고 싶다.

그중 인터넷은 주로 컴퓨터를 사무실 환경에서는 LAN, 댁내 환경에서는 모뎀을 통하여 공중망에 접속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시장조사에 의하면 2001년까지 세계적으로 무선가입자가 5억 3천만에 이르고 2004년에는 10억을 돌파할 것이며 이때 판매되는 휴대전화의 상당수가 이동차량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동 무선패킷 통신산업분야는 21세기 정보통신 분야의 거대산업 중의 하나로 Mobile PC 제조산업, 차량탑재 무선 인터넷 산업으로 이동 무선 데이터 통신 및 사회 기반의 획기적인 산업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전파자원은 매우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다. 이는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이미 전파자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특집에서는 IMT-2000이나 1-3GHz대역의 디지털 이동전화, 위성통신, 디지털방송, 광대역 무선가입자 회선(BWLL)분야 및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 등 전파통신 시스템의 공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수용성 및 상호 연동성이 높은 전파자원 이용기술을 위하여, 전파자원이용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전파이용수요에 대비하여 전파자원을 이용하는 매체에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정책과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의 최첨단화된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집위원장 임 춘 식